

국별 리포트

터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780천km ²	G D P	7,300 억 달러
인구	73.91 백만명	1 인 당 GDP	9,877 달러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신터키리라(Yeni Turkish Lira)
대외정책	친서방 및 친아랍의 균형외교	환율(달러당)	1.30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흑해, 마르마라해, 에게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다넬즈 해협을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약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7천4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EU와 터키는 2004년 가입협상을 시작한 후, 터키는 소수민족 인권상황 개선 등의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으나 터키의 사이프러스발 선박 및 항공기 입항 금지를 주된 이유로 2006년 12월 EU 가입협상이 부분 중단되었음.
- 최근 터키는 지정학적 중요성, 시장잠재력, 거대시장 인접성 등 유망시장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post-BRICs군에 빠짐없이 언급되는 국가이고, 블루오션의 신시장 개척을 위하여 터키에 대한 시장진출 및 경제협력 증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제성장률	8.4	6.9	4.7	0.9	-6.0
재정수지 / GDP	-0.2	-0.5	-1.4	-1.8	-6.3
소비자물가상승률	10.1	10.5	8.8	10.4	5.5

자료: OECD CRAM, IMF, EIU.

□ 세계경기 침체 및 FDI 유입 감소로 200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 전망

- IMF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각종 경제개혁 과제의 착실한 이행으로 터키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7%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였음.
- 그러나 2007년에는 금리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 및 고인플레이에 따른 소비자 수요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4.7%에 그쳤음. 이러한 추세는 2008년에도 이어져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존의 성장둔화, 민간소비 침체, 고정투자 위축 및 9~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2008년에는 0.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터키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지역의 경기침체, FDI 유입 감소 및 은행들의 대출 축소 움직임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됨. 이미 2009년 1분기 중 1945년(-15.3%)이후 최저치인 -1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4분기부터는 플러스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2009년 전체로는 -6.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산업생산은 1~6월중 전년동기 대비 두자리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있고 내구 소비재 생산의 경우 7월부터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국내총투자/GDP: 22.2(2007) → 23.0(2008) → 16.9(2009)

□ 재정수지 적자폭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07년에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18→8%), 내수 부진, 조기총선 관련 재정 지출 등으로 GDP 대비 1.4%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2006년 대비 소폭 악화되었음. 2008년에도 2009년 3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선심성 재정지출이 지속되었고, 실업률 감소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지출로 전년 수준인 GDP 대비 1.8%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사회보장 관련 지출증가 및 대외 채무 관련 이자지급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재정수지는 2008년 상반기 흑자를 기록하였던 것과 달리 2009년 상반기 이미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 전체로는 GDP 대비 -6.3%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터키정부와 신규차관 제공협상을 진행중인 IMF는 터키의 재정지출 축소를 대기성차관 지원의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침체를 감안시 터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물가는 하향 안정세

- 2007년에는 긴축통화정책(고금리), 내수부진(내구소비재 소비지출 억제), 고정투자 증가둔화, 리라화 강세 및 전기요금 인상동결조치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대로 둔화되었으나 중앙은행 억제 목표치인 4±2% 포인트를 상회함.
- 2007년 8월 이후 소비자물가는 점진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내었으며, 2008년에는 상반기 중 식료품(음료), 에너지(원유, 전기) 및 교통비 등 공급측면의 가격 급등으로 평균 10.4%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세 및 국내외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크게 둔화된 평균 6.2%, 연말기준 5.5%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7.5%내의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경제구조·정책

□ 높은 외부조달 의존에 따른 경제 취약성

- 개발도상국인 터키의 경우 해외자금 차입의존도가 높아 금융위기시 외부자금의 국내 이탈이 나타나면서 통화가치의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며,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경제정책 시행으로 경제성장이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IMF 대기성차관 지원 협상은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

- 2008년 5월 IMF 대기성차관 프로그램의 종료 이후 터키는 IMF와 약 200억~4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차관 지원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나, 지원규모, 재정지출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
- 듀르머스 일마즈(Durmus Ilmaz) 터키 중앙은행 총재는 2009년 9월 5일 런던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터키의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의 재정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 IMF 자금의 수혜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음.
- 당초에는 10월 초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IMF 연례회의에서 차관 지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금번 연례회의시 IMF의 차관지원 담당 실무진이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관지원 협상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업 및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 터키 경제는 2008년도 기준으로 농림수산업이 GDP의 8.8%, 섬유, 자동차, 철강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27.5%, 관광산업 중심의 서비스업이 63.8%를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 분야는 EU 시장 진출에 대비하여 주요 공기업의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 자동차 및 섬유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서 깊은 유적과 천혜의 자연을 보유한 관광산업은 전통적으로 유망한 분야임.

□ FDI 유입 증가세 둔화

- 2004년 이후 FDI 유입실적이 현저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경제성장률 호진, 2005년 10월 EU 가입협상 개시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임.
- 2004~06년 FDI 유입실적은 각각 28억 8,300만 달러(전년 대비 65% 증가), 98억 400만 달러(241% 증가), 202억 달러(106% 증가)로 급증추세를 나타내었음.
- 터키국제투자자연협회(TIIA)에 따르면, 2007년에는 쿠르드족간 무력충돌로 외국인투자가 다소 영향을 받았으나 222억 달러의 FDI가 유입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08년 FDI 유입은 동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유동성위기에 따른 외국자본 이탈 등으로 156억 달러로 감소함.
- 2009년 상반기 FDI 유입실적은 34억 달러로 전년 동기의 84억 달러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으나,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액의 경우 2/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전망은 긍정적임.

□ 수출지향 대외경제정책 시행

-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터키 정부는 수입대체 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당시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대외 개방형 수출드라이브 산업정책을 지향하였음. 수출지향 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1980년대에는 무역자유화와 수출촉진 정책을 채택하고, 법인세 감면, 세금 환급, 수출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조치를 취하였음.
- 1990년대 들어서는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맞추어 WTO 및 여타 국제규율에 상응하도록 수출입제도를 정비하여 시행하였음. 2003년에도 수입제도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WTO 및 EU 관련 규정과 합치되는 수입제도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음.
- EU 가입을 위해 1996년 1월에 EU와 관세동맹을 맺게 됨에 따라 수출입제도를 전반적으로 EU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기 시작하였음.

- 수출지향의 투자 증대, 외국자본과 기술의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1985년 최초의 자유무역지대를 지정한 이래 총 21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음.

□ 2008년 10월 이후 기준금리 10.25% 포인트 인하

- 터키 중앙은행은 리라화 가치하락 및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2006년 중반 이후 기준금리를 17.5% 수준에서 유지하여 왔으며, 2008년 10월 기준금리를 16.75%로 소폭 인하하였음.
- 이후 터키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차입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으며, 12월 현재 역대 최저 수준인 6.5%를 유지하고 있음. 터키 중앙은행은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구 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 상 수 지	-22,137	-31,893	-37,697	-41,289	-14,372
경 상 수 지 / G D P	-4.7	-6.2	-5.8	-7.0	-6.4
상 품 수 지	-32,988	-40,941	-46,669	-52,844	-24,838
수 출	78,365	93,611	115,356	140,999	106,497
수 입	111,353	134,552	162,025	193,843	131,335
외 환 보 유 액	50,402	60,710	73,156	70,231	75,010
총 외 채 잔 액	169,269	207,773	251,477	277,056	263,255
총 외 채 잔액 / G D P	36.9	41.9	40.7	40.6	42.5
D. S. R	38.0	32.9	32.6	34.5	43.4

자료: OECD CRAM, IMF, EIU.

□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감소로 경상수지 적자는 크게 축소될 전망

- 상품수출은 2006년 936억 달러, 2007년 1,154억 달러 규모로 증가해 왔으나, 중간재 수입증가 및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입 또한 2006년 1,346억 달러, 2007년 1,620억 달러로 급증함에 따라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되어 왔음.
- 2008년 경상수지 적자는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부담, FDI 지분증가에 따른 배당금 지급(소득수지 악화) 등으로 GDP 대비 7.0%인 41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산업생산의 감소로 인한 원부자재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2009년 경상수지 적자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해외차입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GDP 대비 외채비중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총외채잔액은 2006년 2,078억 달러, 2007년 2,515억 달러로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7년말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40.7% 수준임. 2007년 외채잔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는바, 이는 유로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유로화 표시 채무의 달러화 환산금액이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함.
- 경상수지 적자의 축소로 2009년 외채수준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터키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GDP 대비 외채비중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IMF 차관 상환으로 공적채무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은 2005년말 45.2%, 2006년말 37.5%, 2007년 32.7%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08년 중 IMF 차관의 상환으로 공적채무 비중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 한편, D.S.R.(Debt Service Ratio)은 2007년 32.6%, 2008년의 34.5%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지역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하며 2009년 D.S.R.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2002년 이후 안정적 국정운영

- 이슬람계 정의개발당(AKP,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은 과거 복지당(Welfare Party)에서 활동하였던 자유우익 노선의 에르도간(Recep Tayyip Erdogan)에 의해 2001년 8월에 창당되었으며, 2002년 11월 조기총선에서 34.3%의 득표로 550석 재적의원 중 363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음.
- AKP는 2007년 7월 총선, 2009년 3월 지방선거에도 승리를 거두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슬람정책을 탈피한 친서구화(EU)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최근 주요 선거에서 AKP 승리, 그러나 지지율은 하락

- 2007년 7월 22일 조기총선에서 AKP는 46.7%의 득표율로 전체 550석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340석을 차지하여 재집권에 성공함.
- 2009년 3월 29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AKP는 3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하였으나 2004년 지방선거에서의 42%, 2007년 총선에서의 46%와 비교시 지지율은 크게 하락하였음. 반면, 야당인 공화당(CHP, Republican People's Party)과 국가행동당(MHP, National Action Party)은 각각 23%, 16%의 득표율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선전하였음.
- 지방선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에르도간(Erdogan) 총리는 지지율 하락에 대해 공식적으로 실망감을 표시하였으며, 향후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용으로 현재의 실패를 만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음. 현재 경기침체의 성공적인 극복 여부가 2011년 예정된 총선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07년 개헌법안 가결

- 2007년 10월, 국민투표에서 의원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헌법개정안이 68.9%의 찬성(투표율 67%)으로 가결됨에 따라 차기 총선은 2011년 7월에 실시될 예정임.

- 2007년 10월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임기는 7년 단임에서 5년 중임가능으로 변경되었고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14년 8월에 실시될 예정임. 대통령은 현행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1-2차 투표 2/3 찬성, 최종 3차 투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회에서 선출되는 방식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직접 선출되는 방식으로 변경됨.

□ 친서방, 친아랍의 균형외교 지향

- 이슬람 국가중 유일한 NATO 회원국인 터키는 유럽,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서방 및 중동 국가들과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며 친서방, 친아랍 균형외교를 지향함.
-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1947년 3월 터키가 미국 트루만 독트린을 지지함으로써 본격화되어 1980년 미국과 국방경제협력협정(DECA)을 체결한 이후 1991년 진보된 협력관계를 거쳐 1999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함.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터키를 활용하여 중동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어 미국과 터키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됨.
- 터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천연가스 및 석유 자원개발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동(이란, 시리아) 및 러시아와 구소연방 국가와도 비교적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EU 가입협상에 대해 대외정책 역점

- 1999년 EU 집행위원회는 터키에 가입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정치 경제적 기준(Copenhagen Criteria) 충족으로 2004년 12월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협상을 시작함.
- 터키는 사형제도, 국가안보법 및 군부의 의원선출권 폐지 등의 인권관련 법안 통과 등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EU가 요구하는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으나, 2006년 12월 터키의 사이프러스발 선박 및 항공기 입항 금지를 주된 이유로 EU 가입협상 항목 중 재화 서비스의 역내 자유이동 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한 협상이 중단된 바 있음.
- 이후 EU는 터키 인권 부문에서는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언론 및 종교의 자유, 여권신장, 소수민족 및 노동자 권리 향상, 군부에 대한 민간 통제

부문에서는 여전히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터키는 2015년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이프러스가 본국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터키의 EU 가입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

- 터키의 EU 가입에 대해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는 지지하고 있지만, 프랑스, 독일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가스관 건설 관련, 터키는 유럽과 러시아의 입장을 모두 지지

- 나부코(Nabucco) 가스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으로서, 나부코 가스관 프로젝트(Nabucco Pipeline Project)는 나부코 가스관 건설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가스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유럽과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음.
 - 동 프로젝트는 2011년에 착공되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가 참여하고 있음. 가스관의 총길이는 3,300km에 달하며, 총 수송량은 연간 310억 m^3 로 유럽전체 소비량의 5%를 초과함.
-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터키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사우스 스트림 가스관 프로젝트(South Stream Pipeline Project)를 진행중임. 동 가스관 건설을 통해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유럽시장을 더 확고히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동 프로젝트는 2015년 완공되어 2016년 가스공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이탈리아가 참여하고 있음. 총 수송량은 나부코의 2배 수준인 630억 m^3 임.
- 터키는 나부코 가스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나, 유럽의 암묵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우스 스트림 가스관이 자국의 영해인 흑해를 통과하는 것을 러시아와 공식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유럽과 러시아의 입장을 모두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사이프러스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

- 전통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와도 최근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나 사이프러스 문제는 그리스와의 관계 정상화에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음.
- 사이프러스 문제해결을 위한 터키계 및 그리스계 주민간 협상은 물론 UN 등 국제사회의 중재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통합에 관한 양측의 합의도출에는 실패함. 2004년 5월에는 남부사이프러스가 단독으로 EU에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EU는 남부 사이프러스를 정식국가로 승인함.
- 2006년 12월 사이프러스와의 관계 악화 이후 2008년 1월 말 그리스 총리의 49년만의 앙카라 방문, 동년 2월 중순 사이프러스 대선에서 강경노선의 파파도풀로스(Tassos Papadopoulos) 대통령 낙선으로 터키-사이프러스 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평화적인 해결책 모색하고 있으나 쿠르드족 무력충돌 위험 항존

- 2005년 2월, 이라크총선에서 쿠르드족이 27.3%를 득표해 주요 정치세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쿠르드족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터키 남동부 지역에서 쿠르드족 분리 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왔음.
- 이라크 북부에 거주하는 쿠르드노동자당(PKK, Kurdistan Workers' Party)의 테러 우려로 터키 정부는 이라크 및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실제로 쿠르드족과 관련된 테러 및 무력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2006년 9월 쿠르드족 분리주의자들의 폭탄테러, 2007년 9월 Sirtak 지방에서의 터키 정부와 쿠르드족간의 무력충돌, 2007년 12월 터키 무장군인의 쿠르드족 반군기지 공습, 2008년 2월 터키 지상군의 이라크 지역 침입 등 충돌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 터키의 쿠르드족 반군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 등이 EU 가입의 걸림돌이 됨에 따라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음.
- 2009년 7월 29일 베시르 아탈레이(Besir Atalay) 내무장관은 민주적인 해결책(Democratization Package) 도입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동년 8월 5일 에르도간(Erdogan) 총리가 쿠르드민주사회당(DTP, Democratic Society Party) 당과 이례적인 회동을 통해 쿠르드족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그러나 2009년 12월 터키 헌재가 DTP를 PKK 반군 연계 혐의로 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터키 전역에서 폭력시위가 발생함.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2 (2009.12)	C2 (2009. 2)
OECD	4등급 (2008. 1)	5등급 (2004. 1)
S&P	BB- (2004. 8)	B+ (2003.10)
Moody's	Ba3 (2005.12)	Ba1 (2002. 8)
Fitch	BB+ (2009.12)	BB- (2005. 1)

- I.C.R.G : 103/140(2006.12) → 105/140(2007.11) → 117/140(2008.11)
- Euromoney : 69/185(2006. 9) → 68/185(2007.9) → 76/186(2008.9)
- I.I : 74/173(2006. 9) → 71/174(2007.9) → 70/177(2008.9)

- OECD 등급은 2008년 상반기 한 단계 상승하여 4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S&P, Fitch 및 Moody's의 신용평가등급은 투기등급 수준인 각각 BB-, BB+, Ba3을 유지하고 있음.

- 2009년 1월 OECD CRE(Country Risk Experts)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터키의 거시경제가 악화되고, IMF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지속되면서 터키에 대한 등급 하향조정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터키 정부의 금융,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종전의 4등급을 유지함. 또한 Fitch 역시 터키의 금융위기 관리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BB-에서 두 단계 상승시켜 BB+로 조정함.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IMF의 경제개혁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며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터키는 1979년 및 1982년 외채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으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잦은 유동성 위기를 경험하며 1984~2005년간 IMF로부터 총 520억 달러(승인기준)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았음. 2008년 5월 IMF 차관을 모두 상환하는 등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IMF 차관 잔액은 없는 상황임.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실적 미미

- 2008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Export Credit Agency)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15억 달러, 중장기 209억 달러로 총 224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액은 2천6백만 달러로 전체의 0.1%에 그쳐 중장기 수출신용에 대한 연체금액은 거의 없음
- OECD CRAM(Country Risk Assesment Model)의 ECA 거래실적에 대한 모델등급은 0등급으로서 최상위 수준임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08~09년 중 대 터키 교역규모 감소

- 2008년 한-터키 교역규모는 41.4억 달러로 2007년 43.7억 달러 대비 5.3% 감소하였으며, 2008년 무역수지흑자폭도 34.1억 달러로 2007년 38.1억 달러 대비 10.5% 감소하였음. 2008년말 우리나라의 대 터키 무역수지는 2002년 7.4억 달러 수준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양국간 무역불균형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가 2009년에도 계속되어 2009년 1~10월중 대 터키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5% 감소한 14.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던 수입액은 증가세가 둔화(6.1%)되어 3.4억 달러를 기록함.

<표 4>

양국간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7	2008	2009.(1~11)월	주요품목
수출	4,087	3,773	2,420	수송기계, 산업용전자제품
수입	282	362	386	광물성연료, 섬유제품, 농산물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 2008년 중 대 터키 투자규모 감소

- 대 터키 직접투자는 2006년 1,590만 달러에서 2007년 1.1억 달러를 기록하며 7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 전년 대비 38.6% 감소한 6,873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2009년 3분기까지 5,328만 달러를 기록하여 2009년 전반적으로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V. 종합의견

- 2008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2009년 1분기에는 1945년 이후 최저치인 전년동기 대비 -1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었음. 그러나 4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가 회복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터키는 IMF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으로 거시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어 2008년 5월 대기성차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산업생산 감소로 인한 원부자재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 해외차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단기간내 새로운 IMF 대기성차관 추가 지원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3월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AKP의 승리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예상되지만,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AKP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용을 통한 경기침체 극복, EU 가입 진전을 위한 정치개혁 등이 향후 정국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조사역 고 안 나(☎02-3779-5654)

E-mail : anna@koreaexim.go.kr